

카일 던햄 박사, 욥, 엘리파즈 2

© 2024 카일 던햄(Kyle Dunh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욥기에 나오는 경건한 현자 엘리바스에 대해 가르친 Dr. Kyle Dunham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고대 근동과 성경의 맥락에서 본 엘리바스의 지혜 신정론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에돔의 맥락, 특히 에돔의 지혜의 전통 속에서 엘리바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의 신학과 지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성하는 몇 가지 주요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욥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욥기의 핵심 텍스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달래고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결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화시키는 신정론에 대한 엘리바스의 접근 방식을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보복신학, 보복신학이다.

욕기와 고대 근동의 지혜 사이에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복의 원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철학적 전망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판테온의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이 인류를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의 지혜 저작물을 탄생시킨 이념적 투쟁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보복의 교리가 사람들의 삶에서 항상 결실을 맺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Van Torn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신정론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보복 모델의 타당성과 그것이 암시하는 신성 개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견해의 핵심에는 운명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Buccellati는 운명이 개인적인 신이 아니라 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수메르어인 '나'에 포함되는데, 월튼은 이 단어가 이러한 제어 속성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월튼은 고대 근동의 유사성 원리에 따르면 신들이 힘, 장수, 아름다움, 크기, 식욕에서 인간을 능가했지만 그들의 감정과 가치는 인간 종들의 감정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과 인간 행동을 명령하는 측면에서 신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의 여러 비문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 언급되는 비문 중 하나가 Ere의 전설입니다.

이 비문에는 '나라를 황폐화시키기 전에 일어나라,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안도하고 너희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리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레의 팔다리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팔다리처럼 지쳤습니다. 일어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그는 자신의 무기에 대해 궁금해하며, 당신이 그를 깨울 때까지 Sibiti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웅들이 자리로 돌아가도록 선반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Ere는 그의 방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기쁨, 피로, 우유부단함,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보복의 영역에서, 우리는 신과 인간이 마찬가지로 타인, 특히 자신보다 낮은 계급이나 지위에 대한 자비의 윤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규범의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이러한 유사성 개념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행위에 따른 보복이 신들, 특히 정의의 행정을 담당하는 샤마쉬(Shamash)에 대한 유사한 도덕적 평가에서 파생된다고 가정하는 바빌로니아 지혜 회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독재적으로 비웃지 마십시오. 이에 사람의 신이 진노하시느니라.

그를 악으로 갚는 것은 샤마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 행위를 소중히 여기지만 궁핍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과 혐오감은 신을 행동으로 이끄는 두 개의 극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로부터 보복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니라.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개인적인 관찰은 자신이 신을 기쁘시게 하는지 불쾌하게 하는지 평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반 토렌은 메소포타미아 학자들의 전통 신학에 따르면 보복 교리는 말하자면 신의 공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유사성의 원리에 대한 관찰, 외삽, 추측을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부여한 가치판단은 개인의 삶의 외적인 상황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낙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복 규범은 욥의 친구들, 특히 욥에게 대답하는 원형이자 주요 상담자인 엘리바스가 전파한 지혜로운 견해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고대 근동 지혜의 이러한 규범은 그의 권고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는 초기에 그의 첫 번째 연설에서 이러한 어조를 설정했습니다. 욥기 4 장 6-8절에서 그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신뢰와 네 행위의 온전함이 네 희망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가 멸망한 일이 있고 정직한 자가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기억하느냐? 나는 죄악을 발갈고 고난을 뿌리는 자들이 같은 것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엘리바스의 보복 교리의 핵심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바스에게서 가치 판단을 결정짓는 개인적인 관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 무고한 사람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모두 분별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불의를 쟁기질하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개인적인 관찰과 욥의 곤경에 대한 엘리바스의 해석의 중요성은 그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날 때 특히 분명해집니다.

욥기 5장 27절에서 엘리바스는 “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진실이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아십시오.

이 두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행악자에게 갚아야 할 보응에 관해 광범위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합니다. 그는 전쟁과 기근의 비유를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완전한 황폐함을 설명합니다. 그는 악인의 곤경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는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뇌물의 천막을 태웁니다.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악을 낳느니라. 그들의 자궁은 속임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의 임박한 멸망은 냉혹합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이 보복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합니다. 옳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르되 너희 악이 너무 많지 아니하냐 당신의 죄악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옳에게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기 때문에 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의 21-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그러므로 좋은 일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너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희는 건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복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엘리바스가 메소포타미아의 관점과 일치하는 많은 동일한 원칙, 즉 신들이 고통받는 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선과 악을 갚는다는 동일한 원칙을 통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복 신학을 넘어서는 두 번째 범주는 신성한 주문을 통한 유희, 신성한 주문을 통한 유희입니다. 엘리바스의 관점과 메소포타미아 지혜의 관점이 일치하는 또 다른 영역은 악을 제거하고 신의 은총을 다시 얻기 위해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러한 기도문은 희생자에게 닥친 악을 근절하기 위해 종교 전문가가 큰 소리로 말하는 주문의 형태를 취하여 그를 의식적으로 정화했습니다. 기도나 주문은 신의 은총을 다시 얻는 수단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신정론의 상담자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신의 친절하 바람을 구하라고 권고합니다. 1년 동안 잃은 것은 금방 보충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목할만한 주문 시리즈 중 하나는 셰르푸 주문(Sherpu Incantations)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가 자신이 어떻게 신이나 기존 세계 질서를 불쾌하게 했는지 알지 못할 때 처방됩니다.

자신의 곤경에 대응하여, 환자는 종교적 금기 위반에서부터 사회적 도덕적 규범 위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죄의 긴 목록을 제시하거나 묘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또한 자신에 대한 사악한 신비로운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주의한 맹세로부터의 석방을 요청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권리를 기술했을 때 가능한 모든 범죄가 해당 권리에 의해 면제되는 것으로 나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는 단순히 모든 가능성을 열거합니다.

주문을 통해 환자는 신 앞에서 자신의 과실과 악행에 대한 무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셰르푸 주문에서 환자는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사제는 신에 대한 범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여신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여신을 경멸했습니다. 그의 죄는 그의 신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그의 여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받은 이 무심코 경멸을 지적한 후,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가 이 모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죄로 열거합니다.

그는 가족 불화와 증오, 거짓말, 기만적인 사업 거래, 경계 표시 제거, 강탈, 부도덕, 살인, 궁핍한 사람에 대한 억압, 험담, 마술, 종교적 금기 위반, 신에 대한 무시, 정치적 불복종, 서약 파기 등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불하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합법적인 아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젊은 남자가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니다. 주문은 판테온에 있는 50명이 넘는 신들에게 악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어 신과 여신에게 마지막 간청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것은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주문인 Dinger Shadiba 주문입니다. Lambert는 이것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기도의 요점은 말하는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인격신이 진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그의 분노가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나열합니다.

그는 나의 죄악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마음의 분노를 말소하시고, 풀어주시고, 억제하소서.

나의 범법을 무시하고,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미덕으로 바꾸십시오. 피해자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신의 견해와 관용을 간청합니다. 그는 허물과 불법과 허물과 죄에 대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의 여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죄를 열거합니다. 그는 “나는 나를 창조한 신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항상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풍부한 재산을 탐했습니다. 나는 귀중한 은을 원했습니다. 욕기에서 친구들은 또한 욕이 신의 주문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봅니다. 첫째, 이러한 주문의 방법론에서처럼 엘리바스는 욕에게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연설에서 욕에게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일을 의탁하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축복이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록 기도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욥이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고 겸손히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호전적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이 기도에 복종하기를 위험천만하게 거부한 것에 관해 두 번째 연설에서 경고를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15장 12절과 13절에서 엘리바스는 “왜 네 마음이 너를 끌리느냐?”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 눈이 번쩍거리며 네 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네 입에서 그런 말을 내느냐? 이는 욥이 묵인하는 기도를 통해 화해를 얻기는커녕 계속해서 터뜨려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촉구하는 좀 더 도시적인 표현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연설의 절정에서 기도에 대한 긴 호소를 합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과 화합하고 평안하라. 그러므로 좋은 일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너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희는 건축될 것이다. 엘리바스는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는 행복한 결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너는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서약을 지불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곤경에 대한 해결책이 회복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경건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드리는 주문 기도를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요인이 중요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주문 시리즈는 엘리바스와 욥의 가장 날카로운 대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연설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저지른 악의 긴 목록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헛되이 네 형제들에게 서약을 강요하고 벗은 자들의 옷을 벗기며 당신은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당신께서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며 고아들의 팔을 꺾으셨습니다. 욥 22.6-9. 일련의 주문에 비추어 볼 때, 욥이 하나님께 어떤 죄도 고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범했다고 생각하는 죄의 개요만 제시하기보다는 욥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악행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욥이 반전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욥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악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승인을 회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엘리바스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와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세 번째 범주는 맨틱한 지혜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과 현자와 욥의 친구들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맨틱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신의 영역에서 오는 특별한 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소포타미아의 지혜관에서 점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전통적인 점술 과학이 천상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Sippar의 왕이었던 Enma Druranki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하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점술은 실무의 지혜와 숭배의 신비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격차를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었던 입문자였습니다. 점술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평범하지만 변경할 수 없는 현실의 측면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계시적인 수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 학자는 점술이 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기보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연결하는 법칙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스터 그랩(Lester Grabb)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제사장, 선지자, 점술가 등의 기능과 겹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영역과도

겹칩니다. 우리는 지혜가 초자연적 영역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Ludlu bel nemeqi의 고통받는 사람은 회복의 수단으로서 점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따라서 불쾌하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수단에 호소합니다.

Ludlu bel Nemeqi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 기관은 매일 나에게 혼란스럽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점술가와 꿈의 사제의 징조는 내 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검사를 받은 점술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꿈을 꾸고 있던 사제도 내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영의 은총을 구했지만, 그는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을 행한 주문 사제는 신의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점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지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꿈을 통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Ludlu bel Nemeqi의 환자는 일련의 꿈을 통해 Marduk이 그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꿈 경험의 스펙트럼 아우라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맹렬한 표정은 회오리바람이었다. 그는 내 위에서 있었다. 내 몸은 마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꿈 경험의 일부로 주문 사제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Marduk이 그를 회복시키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판을 들고 있는 주문 사제 Marduk이 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Marduk의 순수한 손에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번영을 가져왔다. 따라서 꿈의 경험은 신성한 영역의 계시의 중요한 부분이자 메소포타미아 지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신정론에서 현자 상담사는 보호하는 영계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루들루의 고통받는 곤경에 대한 유일한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 즉 조언이었는데, 이는 엘리바스가 제시한 조언과 놀랍도록 유사하게 들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분별력이었고 나의 규칙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상 수단은 불운한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현실을 봅니다.

욥의 친구들 중 최고의 상담자는 개회 연설에서 한밤중에 그에게 나타난 유령으로부터 영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독특한 계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 보면 이제 한 말씀이 나에게 몰래 전해졌습니다. 내 귀에는 그 속삭임이 들렸다.

밤에 환상을 생각하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질 때에 두려움이 내게 임하여 떨며 내 모든 뼈가 떨리느니라 그는 방문객을 정신과 형태로 묘사합니다. Ludlu bel nemeqi의 설명과 야간 방문에 대한 Eliphaz의 설명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liphaz가 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꿈은 인간의 죄악의 보편성에 관한 진리를 엘리바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계시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경험을 활용하여 그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의 조언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엘리바스가 특별계시를 사용한 것은 히브리 지혜문학 전체에서 이례적이다.

현자들이 밤에 영계에서 방문했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것을 사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를 배경으로 볼 때 이치에 맞습니다. 유사점은 엘리바스가 메소포타미아 지혜의 전통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암시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자비로운 천사가 욥에게서 떠난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신이 불쾌해하신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첫 번째 연설의 중간 지점에서 엘리바스는 고통받는 사람이 천사의 지혜와 천사의 중보를 상실했음을 암시합니다. 욥기 5장 1절에 “지금 부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들 중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의 연설 도중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는 고난을 치료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으로 두려워하는 악귀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김을 입어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멸과 기근 속에서도 너희는 웃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아마도 올바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하느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보호하는 영이나 천사의 존재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아마도 욥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욥을 회복시키겠다는 엘리바스의 약속에서도 환상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도할 것이고, 그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욥기 22:26. 엘리바스의 신격의 완전한 초월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영적 존재의 보호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 수단으로 중보기도를 호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연설의 마지막 간청에서 엘리바스는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께 기도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서약을 지불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Lulu Bel-Nemechi와 신정론에 관한 고대 근동의 다른 작품들에 나오는 고통받는 사람의 접근 방식과 눈에 띄게 유사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전통에 확고히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며, 나는 이것이 그가 속한 에돔의 지혜 전통에서 예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연설을 살펴보면,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엘리바스 연설을 살펴보고 교회 해석 전반에 걸쳐 그들의 수용

역사와 초기 제2성전 유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나는 해석자들이 어느 쪽이든 전환점이 되는 엘리바스의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엘리바스를 가혹한 비판자나 온유한 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들이 엘리바스를 호의적인 인물로 볼 것인지, 불리한 인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 여덟 가지 범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중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한 인물보다는 호의적인 인물에 가깝지만, 결국 그의 지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책의 기능은 최고의 인간 지혜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맥락에서 무고하고 의로운 고통과 씨름하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사가 살펴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의 말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연설의 어조를 보면, 그가 온유하고 온화해 보이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연설이 끝날 무렵에는 옅을 더러운 죄의 목록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조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다. 해석자들이 살펴본 또 다른 점은 옅의 인물들 사이에서 엘리바스가 그의 위치에 있는 더 큰 목적과 역할입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책에서 그의 중요성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신정론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신념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를 이끄는 신학적 교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특히 옅기 4장을 살펴보는 엘리바스의 보복 교리의 성격, 목적, 가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옅기 4장 5~11절에 나오는 엘리바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를 책 속의 인물로 인식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중요했는데, 옅기 4장 12~21절에서 그가 꿈에서 환상을 만나는 동안 천사나 영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 회복적 고통에 관해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는 선과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대담자이자 원로 정치가로서의 그의 지위를 살펴보십시오. 15장에서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그는 지혜 전통에 호소하며 그를 현인 중 원로 정치가의 지위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면 그에 대한 더 높은 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소위 죄 목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바스는 옴이 고백할 모델로 삼아 죄 목록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책 끝부분에서 야훼께서 그를 꾸짖으신 이유를 살펴보세요. 옴기 4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옴에게 친구들이 그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엘리바스가 전한 연설의 핵심 교리 중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 본문을 읽어 보는 것입니다. 옴의 첫 번째 연설은 4장과 5장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해석자들은 여기에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섹션이 있고 그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장 구분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장 2장부터 21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장 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논쟁 연설 장르로 분류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논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현자들 사이의 대화, 전제를 두고 다투는 현자들의 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선지자들이 언약 위반에 관해 그들과 맞설 때 선지자와 백성 사이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엘리바스의 각 연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서문 공식에 따라 엘리바스는 대답하여 4장에는 4개의 하위 스탠자와 함께 두 개의 큰 스탠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4장은 기본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엘리바스는 2-4절에서 욥이 과거에 행한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만일 그가 회개하고 복종한다면 그 앞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훈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엘리바스는 욥을 하나님의 위로의 장소, 그의 죄를 회개하고 포기함으로써 해결되는 장소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 5절에서 11절은 무죄한 자가 악인처럼 멸망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보복적 주장의 핵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엘리바스의 확고부동한 교리입니다.

의인은 악인처럼 멸망할 수 없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이곳은 엘리바스가 밤에 일어난 청각적 꿈의 환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조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성한 계시, 즉 맨틱한 지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계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영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을 봅니다. 5장에는 세 개의 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에서 그는 욥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4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잠시 5절부터 11절까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는 그의 보복 교리의 주요 신학적 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5절에서 욥의 과거 행위에서 현재 상황으로의 전환과 함께 대조 접속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엘리바스에게 보복의 교리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11절에서 끝나는데, 엘리바스는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관한 자신의 관찰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생 사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자가 이 부분을 읽는 방식은 그가 엘리바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크게 결정합니다.

이 섹션의 수석 상담사는 자신의 논문 개요를 설명하고 특히 사자에 초점을 맞춘 자연의 예를 통해 이를 확증합니다. 악인만 망한다는 불가사의한 현실 때문에 욥이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욥은 절뚝거리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기분이 상한 신을 묵인한다면 그에게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욥이 축복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렀으니 너는 기한을 지킬 수 없느니라. 그것은 당신에게 닿았고 당신은 당황하게 됩니다.

확실히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이고 당신의 길의 진실성은 당신의 희망입니다. 무죄한 자가 멸망한 일이 있고 의로운 자가 어디서 없어졌는지를 기억하느냐? 악을 밟고 재앙을 뿌리는 자들이 그대로 거두는 것을 내가 본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운으로 그들은 멸망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자의 포효, 사나운 사자의 소리, 젊은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는구나.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는 고대 근동의 웅변적인 상담가의 어조를 설정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되돌리고 궁극적으로 불쾌한 신에게 필요한 굴복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 엘리바스는 농업과 동물 생활의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관찰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나중에 야훼께서 하실 연설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가르침을 강화하고 욥이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대 근동에 공통된 주제와 그가 출현한 맥락에 맞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연설 중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4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밤의 꿈 환상입니다.

12절은 하위 연의 시작입니다. 이는 주제의 전환으로 명확하게 표시되며 12절에서 16절이 포함을 형성합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영적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자신의 환상적 경험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조용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밤의 환상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생각 속에서 내 귀에는 그 속삭임만이 들렸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에 두려움이 내게 임하고 떨어뜨니라.

내 프레임 전체가 흔들렸다. 영혼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이 내 살의 털을 쭈뼛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형태가 조용히 나타났고, 그때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생생한 꿈의 만남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의 이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여기에 신성과의 붓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별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몰래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소 드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또는 은밀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계시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계시에 대한 비정상적인 설명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를 통해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는 그에게 놀라운 심신학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환상에서 나온 이러한 불안한 생각들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신과의 만남을 위해 사용되는 깊은 잠에 대한 단어와 비교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서술자인 아브라함은 이것을

묘사하는데, 엘리바스의 묘사와 눈에 띄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고, 보라, 두려움과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창세기와 욥기 기록 모두 신성한 계시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깊은 잠을 뜻하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기록 모두 공포의 감정적 요소를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들은 엘리바스의 꿈 만남이 하나님께서 깊은 잠과 꿈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고대 근동의 상황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몸 전체를 가리킨다.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메시지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욥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의미심장하게 전달합니다. 다음 부분은 그가 자신에게 공개된 내용의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7절부터 시작하여 다음 몇 구절에서 발생합니다. 성령은 엘리바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17절에 보면, 죽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만드신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미련하게 여기시거든 하물며 흙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물며 새벽부터 황혼까지 좀먹기 같으니 그들은 분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 천막의 줄이 뽑혀도 지혜를 인하여 죽지 아니하리이까? 엘리바스에게 주어진 특별계시의 내용은 때때로 진부하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그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존재가 엘리바스에게 와서 그는 이것을 선언하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욥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회개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그의 시입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으라고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마지막 호소로 첫 번째 연설을 마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조연자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에게 닥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꾸지람을 물리치지 말라 그가 고통을 주시나 싸매시며 치시나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그가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일곱 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네게 닿지 않을 것이다. 기근 속에서 그분께서 너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전쟁에서 칼의 타격과 혀의 채찍으로부터 너를 숨기시어 환난이 올 때에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욥이 어떻게 구출될 것이며, 그의 후손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혜 전통에 대한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조사해 보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고대 근동 사상의 개념적 통용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제는 죄의 고백에 수반되는 유익한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하셨지만, 욥이 단지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그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징계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여기에는 신에게 부여된 변덕의 요소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약간의 자의성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일으키시지만 묶으시고, 때리시지만 치료해 주십니다. 요점은,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상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단순히 묵인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이 최고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하며, 보복의 법칙이 그의 특별한 경우에 참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두 번째 연설로 넘어가면 욥기 15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15장에서 그는 다시 보응 신학과 신의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번 두 번째 연설의 장르도 역시 토론 연설이다.

관례적인 서문에 이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은 2절부터 19절까지 두 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친구의 조언에 복종하기를 명백히 거부하고 그가 달래는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불쾌하심에 응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질책합니다. 즉, 욥은 엘리바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엘리바스가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을 하여 욥을 조롱하는 것과 노골적으로 그의 죄를 비난하는 것 사이를 번갈아가며 나누는 준교차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조롱하고 나서 죄를 비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지혜 교사가 되기 위한 자신의 자격을 요약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연설의 두 번째 부분인 20절부터 35절까지에서 엘리바스는 다시 한 번 에돔의 지혜의 신성한 권고로부터 욥에게 경고함으로써 보복적인 교리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바스는 그 전통을 위엄있게 지지합니다. 나는 여기서 7절과 이 두 번째 연설의 다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제안하는 조언은, 당신이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나? 당신은 언덕 앞에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두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 중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백발이 된 자나 노인이 다 날이 네 아버지보다 많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너무 적습니까? 온화한 결말을 뜻하는 말조차요? 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데려가나요? 왜 눈을 깜박이나요? 네가 네 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네 입으로 그런 말을 토하는도다. 그는 계속해서 순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욥도 순결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혐오스럽고 부패한 것은 얼마나 더 나쁜가. 이어서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전하고 그 조상들에게 숨기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분은 욥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분개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 욥을 조롱함으로써 그는 본질적으로 욥의 따르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권고한 것을 따르기를 그토록 교묘하게 거부하는 당신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의 생각에 호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오? 이 구조는 아마도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즉 첫 사람 아담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담에 관한 신화와 연결시켰지만, 엘리바스는 단순히 '네가 첫 사람만큼 지혜로울 만큼 지혜로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의 것은 위엄과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내용은 파생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네가 어떻게 그토록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첫 사람만큼 지혜롭습니까? 물론 그 의미는 욥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엘리바스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욥기 22장의 세 번째 연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연설은 엘리바스가 신의 주문과 죄를 부인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연설에서도 그는 토론 연설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연설에서처럼 찬송가의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의 스타일은 시편을 연상시킵니다. 연설의 구조는 분류하기 어렵다.

이 책은 2절부터 5절까지의 일련의 수사적 질문과 연설의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섯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욥에 대한 비난을 명시하는 엘리바스로 구성됩니다. 욥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욥을 위협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따르기를 거부하면 그 악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무지하시다고 잘못 주장하고, 악인의 종말을 근거로 욥에게 경고하고, 마침내 조건부 회복 약속으로 욥에게 지시했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회유를 통해 하나님의 승인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2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일련의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을 읽고 싶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유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그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의로우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길을 올바르게 행하면 그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그가 당신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신의 경건함 때문입니까? 네 죄악이 크고 네 죄악이 한이 없느니라 당신은 형제들에게서 값없이 전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거벗은 사람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당신은 기절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강한 자의 것이요 편견이 있는 자는 거기 거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들의 팔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울무가 너희를 에워싸고 갑자기 두려움이 너희를 놀라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식으로 전환합니다. 욥은 이 부분에서 그가 범했을 수도 있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엘리바스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욥이 자신의 죄와 사악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은총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욥을 둘러싼 흑암과 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있든 없든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물의 홍수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아니하시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여기에서 그는 격동하고 어둡고 차가운 물, 다른 곳에서는 스올과 물의 소란과 암울한 어둠과 연결된 이미지를 통해 욥을 휩쓴 이 끊임없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 이미지에서 엘리바스는 신성한 초월성을 높이는 찬송으로 전환합니다.

하나님께 선언된 악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할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이 그 악한 반열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묵인하고, 회개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으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엘리바스가 그의 세 가지 연설을 통해 몇 가지 핵심 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응 신학이고, 특별 계시에서 나타난 지혜의 원천이며, 신의 주문과 달래기를 규정하고, 욥이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훼가 다른 친구들의 엘리바스를 꾸짖는 마지막 구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왜 여기 책망에서 엘리바스를 특별히 지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의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다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하노니 이는 네가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은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져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아, 내 종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의 기도를 들어 네 어리석음을 따라 너에게 갚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네가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은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이전의 인간적 연설과 신적 연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 선언하시는 책망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엘리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주요 문제는 나에게 또는 나에 관해 때때로 번역되는 "to me"라는 문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목적인 무엇이 옳은지, 당신이 나에게 또는 나에 대해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관련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그의 종 욥처럼 나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셨지만, 욥 자신은 여호와와 말씀의 통해를 통해 여호와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42:1-6에서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잔소리하는 질문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방식이 됩니다. 욥의 연설의 내용이나 형식이 친구들의 연설보다 어떻게 우월합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련된 문제는 엘리바스의 비난의 성격과 이 책에서 이 책에서 그의 역할과 목적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전통적으로 거짓말 또는 나에게라는 문구를 나에 관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자는 그 의미가 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한 창세기 20장 2절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돔(Edward Dorm)은 누군가를 주제로 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예를 들어 예레미야 40:16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이스마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주로 그들의 연설 내용과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 말한 내용 때문에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신학적 지향이 함축적으로 잘못되었고
 욥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해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르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니엘 티머(Daniel Timmer)의 토론에서는 이 문구의 의미가 나에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책망은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지 않은 내용과 더 관련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먼저,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el'은
 직접적인 문맥에서 말하는 동사 뒤에 세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 발생은 후속
 사용에 결정적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말하기를 뜻하는 단어인 devar와 전치사 'el'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 첫 번째 문구에 있는 전치사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에서 욥에 관해 거의 또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말씀의
 방향을 욥에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접적인 문맥상 이 용법은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두 사건에 대해
 결정적입니다.

욥이 경솔한 말을 뉘우쳐 엘리바스와 그에게 옳은 말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둘째, 고대 역본들은 이
 구절의 전치사에 대한 to의 의미를 지지하거나 적어도 모순되지 않으며 관련의
 의미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칠십인역은 이것을 이전이나 ~로 암시하는
 에노피안(enopian)으로 번역하고, 별게이트(Vulgate)에는 나에 관한 것이나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위치로서 이전을 암시하는 정족수(quorum)가
 있습니다.

셋째, 욥에서 전치사 'el to와 말하는 동사 devar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우려의
 의미보다는 간접 목적어의 여격이 매번 실제로 뷰에 있음을 증명하거나
 입증합니다. 티머는 히브리어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러한 구성이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이 진술과 신의 연설에서 발견되는 욱에 대한 비판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일은 38장부터 41장까지에서 발생합니다. 야훼는 이미 두 번의 확장된 대립 담화를 통해 욱의 말을 다루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42장 7절과 8절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욱이 올바르게 말한 것과 세 친구가 말한 것을 야훼가 언급한 것은 아마도 욱이 대화는 시대착오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는 이미 이전 설교에서 그러한 연설의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직전의 말, 즉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욱의 확장된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욱이 책망하고, 야훼가 욱의 연설 내용에 대해 일찍이 욱을 꾸짖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승인을 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의 연설 내용과 자신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가 욱의 첫 연설에서 욱을 책망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욱이 말한 것을 승인한다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6절에 나오는 욱의 회개라는 좀 더 직접적인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 친구들이 나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1절부터 6절까지의 욱의 회개가 염두에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말하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때 이 분사는 소수의 경우에만 사용되며 확실하고, 확정되고, 확립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나 문제를 가리킨다. 신명기 13장과 17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여 법적 소송에서 구속력을 갖는 말이나 진술을 말합니다. 시편 5편은 신실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진리를 그 입에서 찾을 수 없는 행악자를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확정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의 반대말은 어리석음, 즉 어리석은 것입니다. 후자의 용어는 2장 10절에서 어리석은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욱의 아내 중 한 사람인 욱에게서 두 번 사용되었으며, 30장 8절에서 욱의 불행은

조롱하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Timur가 인정한 것처럼 친구들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옹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옹이 이전에 야훼로부터 자신의 말의 내용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면, 옹이 친구들과 구별하여 한 신뢰할만하고 확실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문맥으로 볼 때 이는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의 확장된 회개의 진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옹처럼 신현이 계시는 현장에서 회개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옹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오만하게 여긴 오만함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고 지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를 고발하신 것은 그의 거만함과 회개로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과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옹을 회개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상담자로서 그 자신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로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훼의 책망이 엘리바스의 연설 내용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엘리바스가 자신을 주장한 특징적인 오만함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이 문맥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이라고 야훼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엘리바스의 연설 내용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엘리바스가 취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매우 불쾌히 여기십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겠다고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 오만함을 회개하라고 강요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책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상담자가 고통받는 사람을 회개로 이끌 때 복종과 정화를 칭찬했던 고대 근동 의식은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담자는 이제 고통받는 사람의 후원 아래 상처받은 신과 겸손한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플롯 트위스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연설 중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앞선 분석은 고대 근동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바스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에 자신의 지혜를 뿌리박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욕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수집하면 엘리바스의 역할과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욕을 회개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회개하지 못한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서 욕기의 대화 주기에서 발견되는 욕의 주요 대화자에 대한 신선하고 다소 제한적인 재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에서 그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환영 이력과 그와 관련된 해석의 모호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복 교리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인 4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신학의 핵심 요소로서 보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친구들에게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대 근동 지혜의 관점에서 엘리바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최고 상담자가 맡을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에돔의 현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 전체에 널리 퍼져 있던 신학적이고 지혜로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보복 신학, 신성한 주문, 맨틱 지혜의 개념에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엘리바스 연설의 핵심 부분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석은 친구들이 제공한 조언의 내용 과 역시 신정론을 제공했던 고대 근동의 다른 현자들의 조언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 링크는 엘리바스가 책에서 밋밋한 1차원적인 인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최고의 인간 지혜와 통찰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상담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조언자로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만함으로 인해 고대인의 전통에 있는 어두운 꿈이나 고대의 관례적인 정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닌 지혜의 참된 근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동종교.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야훼의 연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촉발된 궁극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수세기 후에 야훼의 신성한 지혜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구주 안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고리를 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최고의 통찰력을 지닌 인류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이 구세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분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가 현자로 창시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지혜와 인간적 지혜의 완전한 결합이시며, 옴의 고통에 대한 해독제이시며, 인류의 가장 큰 필요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훌륭한 상담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옴기에 나오는 경건한 현자 엘리바스에 대해 가르친 Dr. Kyle Dunham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션, 고대 근동과 성경의 맥락에서 엘리바스의 지혜 신정론입니다.